

성경적 관점의 예술미(藝術美)에 관한 탐구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 ‘천지창조’를 중심으로-*

**A Study on Artistic Beauty from a Biblical Perspective
-with priority given to “the Creation” in Genesis 1:1-2:4-**

방은영 (Eunyoung Bang)**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aesthetics of art from a biblic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 described in Genesis 1:1-2:4. As contemporary discussions on the nature and origins of art become increasingly diversified and relativized, this study seeks to reexamine the foundations of biblical aesthetics through a biblical perspective and explore whether it offers insight into the loss of meaning and confusion of standards faced by contemporary ar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iblical perspective on artistic beauty is not simply limited to an individual’s subjective aesthetic sense or creative activity, but can only be fully understood through a profound insight and perception of the creatures created by God. Therefore, true artistic beauty can only be illuminated in relation to God as the Artist,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this is an attribute revealed within God’s transcendent revelation. Second, the artistic beauty manifested in the process of creation reveals the fundamental attributes of art—diversity, uniqueness, and unity—in a meticulous manner, showing the pinnacle of artistic beauty through completeness, harmony, and clarity within order and balance. This demonstrates that all creation possesses its own unique beauty while forming a perfect unity within the overall order of creation. In summary, the degradation of art and cultural confusion today stem from the forgetting of the spirituality and principles of

* 2025년 11월 7일 접수, 2026년 2월 9일 최종수정, 2월 26일 게재확정

** 총신대학교(Chonshin University) 산업교육학부 부교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lovelybeyl@hanmail.net.

creation of God, the Creator and Artist.

Furthermore, from a biblical perspective, it can be understood that artistic beauty belongs to the sovereignty of God, the supreme artist who gifted beauty to humanity through creation.

Key words: biblical perspective, artistic beauty, genesis, creation.

I. 서론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술의 속성인 아름다움, 즉 예술미(美)에 대한 인간의 탐구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서구 미학은 오랜 시간 미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려 노력해 왔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김문환, 2002).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현대사회가 직면한 예술의 타락과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이 낳은 유산으로서 문화의 혼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예술미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종교적 전통들에서 제시해 온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가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독자들에게까지도 하나의 문화적, 철학적 자료로서 재해석되어야 함에 대한 여지를 지닌다. 또한 성경 말씀이 예술과, 질서, 그리고 예술가치에 관한 상징적 서사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예술이 지닌 미학적 범주(완전성, 조화, 명료성 등)와 접목될 때 논의의 확장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예술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성경적 관점에서 예술미의 본질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천지창조 과정에 나타난 예술적 속성들, 즉 다양성, 고유성, 통일성이 어떻게 완전성, 조화, 명료성으로 이어지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창조 원리에 반하는 현대 예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성경적 예술미의 회복이 가져올 문화적, 영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단순히 예술미(美)의 개념을 논하는 것을 넘어, 예술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술미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Schaeffer, 2002)임을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 예술과 미학이 잃어버린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성경적 관점에서의 예술미(藝術美)

예술은 그 자체로 우주만물의 조화와 질서 속에서 미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으며 분명, 무질서와는 구분되는 속성을 지닌다(Bourriaud, 심은록 역, 2012). 성경적 관점이란 성경의 말씀이 전제하는 세계 이해, 인간 이해, 가치 구조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예술·문화·미(美)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Eco, 1986). 따라서 성경적 관점의 예술미는 단순히 한 개인의 감정이나 상대적 취향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 질서에 기반한 관계성과 의미 전달의 구조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김영재 역, Schaeffer, 2001). 이러한 논의는 예술을 한 개인의 관점을 넘어

보다 공식적인 범주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예술 행위로 간주하려 했던 Wolterstorff(1987)의 예술론, 그리고 예술미를 상징적 형식 안에서 드러나는 의미의 구조로 해석하려 했던 Tillich(1959)의 논의와도 맥을 같이한다. 더 나아가 일찍이 아퀴나스가 제시한 예술이 지닌 완전성, 조화, 명료성 개념은 예술미를 주관적 취향이 아닌 질서와 인식 가능성의 범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Eco, 1986), 이러한 논의들이 곧 성경적 관점의 예술미 이해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Schaeffer는 1973년에 발표한 『Art and the Bible』을 비롯한 일련의 저서들에서, 현대 예술이 순수한 주관성이나 자율적 형식 실험으로 환원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Schaeffer의 예술에 대한 관점은 주로 복음주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학술적 논의들에서는 비판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Begbie(2000)는 Schaeffer의 논의에 대해 현대 예술의 복합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예술이 자칫 신학적 도구로 환원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Wolterstorff(2010) 역시 예술을 특정 세계관의 산물로만 규정하기보다, 예술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하는 ‘행위’(action)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이 지닌 고유한 구조적 원리를 이해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을 근거로 본 연구자는 Schaeffer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평적으로 재독해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즉, Schaeffer가 제시한 예술 이해 가운데 예술을 순수한 주관적 취향이나 형식적 자율성에 국한하지 않고, 관계·질서·의미 전달의 구조 속에서 파악하려는 문제의식은 본 연구의 이론적 출발점으로 적극 참조하는 반면, 창조 서사가 제공하는 미학의 범주(완전성, 조화, 명료성)를 해석의 틀로 재구성하여, 신앙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분석 자원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예술미(藝術美)는 제작 기법, 내포하고 있는 사상, 감각, 기술, 지적인 이해가 결합된 역동적 과정(Sasaki, 2002)이자, 미적 대상을 지각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인지적 활동(Lankford, 1992)을 수반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미에 대한 진정한 향유는 단순히 한 개인이 감상의 대상을 관조하는 것을 넘어 집중력과 몰입에 의한 고도의 미적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성경적 관점에서의 예술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에서는 우주가 무(無)로부터 창조되었음을 명시하며, 이는 창조 사역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능력, 그리고 창조적 의도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예술적 속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미학적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천지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예술가이심을 상기시켜준다. 오로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행위야말로 진실성, 예술성, 균형미, 통일성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예술적 면모라 할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과

정을 지으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4, 10, 12, 18, 21, 25, 31)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표현은 히브리어 토브(טוב)에 상응하는 헬라어 ‘칼로스’(καλός)의 의미와 같이 ‘심히 아름다웠다’는 뜻을 내포하며, 완성된 창조 세계의 조화와 완전성에 대한 궁극적인 만족감을 나타낸다(Wenham, 1987).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 아름다움이 곧,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었음을 상기시킨다.

둘째, 예술가의 활동에는 감정 표현과 함께 미적 가치가 드러나며(Sheppard, 2001), 예술가의 심미적 안목과 창조적 재능을 통해 작품에 아름다움을 불어넣는 행위(Kevin, 1982)가 수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 완전한 예술가적 속성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예술미를 발휘할 수 있으며 피조물로부터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악, 춤 등 다양한 예술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음을 보여준다(출15: 20, 21 ; 삼하6: 13-16). 이는 인간의 예술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존재함을 시사한다.

셋째, 성경적 관점에서 예술미는 창조물에 대한 철저한 통찰과 지각을 통해 조명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 경험이 아닌 적극적인 직접적인 인지적 반응과 경험을 요구한다(Farley, 2001). 이와 관련해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미적 범주를 예술 작품에서 발견되는 ‘완전성’(integrity), ‘조화’(harmony), ‘명료성’(clarity)으로 제시한 바 있다(김윤, 2010). 이는 곧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관점이자 곧 하나님 창조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성’은 작품이 본질적으로 지녀야 할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화’는 전체와 부분이 유기적인 상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며, 명료성은 작품이 지닌 고유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속성들에 대한 지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술미를 느끼되 궁극적으로는 예술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예술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처럼 예술미의 속성으로서 다양성, 고유성, 통일성이 완전성, 조화, 명료성을 통해 어떻게 예술미의 극치를 보여주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Variety)과 완전성(Completeness)이다. 천지창조는 빛, 궁창, 땅, 바다,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창세기 1:1-2:4), 이러한 다양한 피조물들은 각자의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지니고 세상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보여준다(이민경, 2005). 창조와 구속의 역사가 예술 창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한 Richard, B. & Gaffin Jr. (2000)은 창조 과정에 나타난 다양성(variety)과 완전성(completeness)을 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이는 예술 작품이 여러 요소를 모아 하나의 완결된 통일체를 이루는 것과 유사함을 강조하

였다. 더 나아가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완전한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은, 예술 작품이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전체적인 통일성과 완결성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고유성(Uniqueness)과 조화(Harmony)이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각각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식물과 동물이 존재하며, 그 어떤 인간도 똑같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한 존재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조화로운 생태계를 형성한다(Schaeffer, 2002). 이처럼 창조의 원리는 개별적인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둔다. 칼빈주의 관점에서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탐구한 기독교 미학자 Seerveld(1980)는 각기 다른 피조물들이 고유성(uniqueness)을 지니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며 만들어내는 조화(harmony)가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며 예술적 조화(harmony)의 근간이 된다고 하였다.

셋째, 통일성(Unity)과 명료성(Clarity)이다. 천지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반복적인 선언이 나타나며 이는 창조 과정의 일관된 목적과 통일성을 드러낸다. 즉,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아래 창조된 것이며, 이러한 통일성을 바탕으로 세상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닌 명료한 질서를 지니게 된 것이다(Rookmaker, 1970). 이는 예술 작품이 작가의 일관된 의도와 표현양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예술미가 지닌 명료성은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성경적 관점에서의 예술미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의 예술가적 속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인간이야말로 이러한 예술의 유산을 누리고 향유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물질만능주의와 인본주의로 인해 희석되어가는 예술의 본질에 대한 논의, 그리고 예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점차 무감각해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예술미에 대한 본질 탐구를 지속함으로써 예술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깊이 인식하고, 진정한 예술을 향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III. ‘천지창조’ 과정에 나타난 예술적 속성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서술된 천지창조의 사건은 혼돈(Chaos)이 질서(Cosmos)로 변하는 미학적 여정으로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학이나 극적인 신화가 아님을 보여준다. 창조주 하나님

의 초월적 계시에 근거한 절대적 창조의 세계를 담은 진리이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예술성이 진술된 위대한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Vasari(1958)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을 빛으로 장식하셨을 때, 그리고 공기와 땅을 나누셨을 때 이미 예술가적인 면모와 완벽한 디자이너로서의 속성을 드러내셨다'고 하였다(이민경, 2005, 재인용).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지으신 여러 피조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 극치에 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조각가가 된 듯 그 어느 피조물보다도 균형감과 생동감을 지닌,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조화 속에서 가장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천지창조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술미는 예술요소로서 선과 색, 모양과 형태, 명암과 조화 등 상호 관계성 안에서 통일성과 다양성 등이 발휘되면서 매우 정교하고도 아름답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인간의 상상, 느낌 등 추상적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의 실재이자 드러난 증거들 그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천지창조가 드러내 보이는 예술미는 다양성과 고유성, 그리고 통일성 등, 예술적 속성을 드러내면서 완전성과 조화, 그리고 명료성을 통해 예술미의 극치를 주도면밀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로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파악하고 예술적으로 재생산하며 인간답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Kuyper, 2000).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천지창조의 역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라는 대 선포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선포한 것으로 천지창조의 전제이자 선언적 구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존재하셨음을 강하게 드러낸다. 또한 창조의 예술적 극치는 시각 예술로서의 속성뿐만 아니라 언어적 속성을 동시에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매우 구체적이고도 명료하게 창조 활동을 하시면서도 미리 어떤 기준을 제시하시지 않으셨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천지창조야말로 초월적 계시를 통한 하나님 주권으로서 인간의 철저한 믿음과 복종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성경말씀(프리미엄 굿데이 성경, 2014)을 근거로 천지창조의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 안식을 취하신 일곱째 날까지로 나누어 그 창조의 과정에서 드러난 예술미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창조의 과정에서 드러난 예술미

창조의 단계	주요 내용	예술적 속성	미적 특성
1일	혼돈과 새로운 질서 : 빛과 어둠의 분리	질서의 부여와 통일성	명료성
2-3일	공간감과 규칙성 : 생명력과 조화 -창조, 땅과 바다, 식물	다양성과 생명력	완전성
4-6일	공간미와 균형: 생동감과 생명력-천체, 동물 : 아름다움의 절정-인간 창조	고유성과 배치	조화
7일	창조의 완성과 안식	완성에 대한 만족	심미적 향유

앞의 <표 >에 제시한 창조과정에서 드러난 예술미를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날의 창조 : 혼돈과 새로운 질서-빛과 어둠의 분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神)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세기 1: 2-5)”.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첫째 날에 만드신 하늘과 땅, 그리고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서 혼돈으로부터 빛이 생성되었으며, 빛은 다시 어두움과 나뉘고 이후 각각 낮과 밤으로 창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창세기 1:2-5). 이것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자 아름다움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혼돈(chaos)으로부터 새로운 질서(cosmos)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최초의 예술가였음을 말하고 있다(Schaeffer, 2002). 이를 통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영광스러운 예술품이 되었으며, 아름다움의 본질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빛과 어두움의 창조로부터 ‘하루’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첫째 날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이 추후에 창조될 것들의 시초이자 서서히 윤곽이 드러날 것들에 대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창조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창조의 첫째 날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화가가 큰 바탕 화면 위에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 다양한 선의 흐름들을 활용해 전체 화면에 역동성을 부여하듯, 전혀 예상치 못하던 생명력 있는 움직임이 묘사되고 있으며 창조의 역동적인 예술

미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예술 창작 과정의 비선형적이고 역동적인 본질을 보여주는 신학적 해석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이민경, 2005).

2. 둘째 날의 창조 : 공간감과 규칙성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穹蒼)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날 이니라(창세기 1: 6-8)”.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둘째 날에 물과 궁창(하늘)을 창조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다(창세기 1:6-8).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술미는 물과 궁창 사이의 공간을 통해 마치 예술이 추구하는 이상(理想)으로서의 예술가적 의지와 감성을 통해 드러난다. 눈앞에 펼쳐진 무한하고 새로운 공간을 마주하는 예술가가 자유를 갈구하고 표현하려는 것처럼, 예술 창조를 위한 공간감과 긴장감이 절묘하게 묘사되어 나타난다(Rookmaker, 1970). 예술의 속성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규칙성이며 공감(共感)을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객관성이라 할 수 있다(Wölfflin, 박치형 역, 1994). 하나님께서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공간을 창조하시는 모든 창조 과정에 비취진 예술미야말로 바로 이러한 예술의 규칙성과 객관성을 근거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Panofsky, 이한순 역, 2002).

3. 셋째 날의 창조: 생명력과 조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種類)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창세기 1: 9-13)”.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셋째 날에 물이 한쪽으로 쏠리고 물이 드러나며 땅과 바다가 나뉘어서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다(창세기 1:9-13). 이는 하나님 창조의 속성 중 창조의 역동성과 생명력에 대한 이미지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가는 예술적 영감에 의해 지니게 되는 창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술혼을 발휘하는 가운데 예술 작품을 창조해 나간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는 이러한 예술가적 영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으며, 일정한 질서가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정도의 예술적 완성도가 높게 드러난다(Schaeffer, 2002). 또한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들 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고려하시며 감상자의 입장에서 아름다움에 자연스러운 동이가 나타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셨음을 보여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이시며 예술미의 극치를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다.

4. 넷째 날의 창조: 공간미와 균형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徵兆)와 사시(四時)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光明)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主官)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취게 하시며 주야(晝夜)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째 날이니라(창세기 1: 14-19)”.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넷째 날에 밤과 낮을 창조하셨음을 말하고 있다(창세기 1:14-19). 낮과 밤은 창조의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하늘과 땅에 속한 빛과 해, 달, 별 등이 보다 더 뚜렷하게 그 윤곽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조화로운 창조의 역사가 보다 조화롭게 진행되었음을 말한다. 이러한 넷째 날의 창조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예술가로서 철저하게 공간과 조화를 고려하고 실제 이를 창조과정에서 발현할 진정한 예술가이심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예술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대조와 반복, 균형과 모방의 속성이 조화롭게 잘 드러나는 가운데 뚜렷한 명함의 구분이 드러나며, 그러한 조화 속에서 뛰어난 예술가로서의 안목으로 감상자의 입장까지 고려한 안정적이며 예술적 작품으로서의 진열미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Wölfflin, 박치형 역, 1994).

5. 다섯째 날의 창조: 생동감과 생명력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

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充滿)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창세기 1: 20-23)".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다섯째 날에 땅 위 하늘 공간이 채워지고 물에 사는 물고기와 생물들을 창조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다(창세기 1:20-23). 하나님 창조의 역사는 예술가의 화판 위에서 그림이 점차 완성되어가듯 점차 완성미를 보이는 가운데 가득 채워져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다섯째 날의 창조 과정에는 예술이 지닌 특성으로서의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 숨 쉬는 생물들이 묘사되기 시작하며, 하나님은 여기서 철저히 예술가적 자질을 드러내신다. 즉,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무한히 창조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로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동시에 하늘과 땅의 조화를 고려하시고, 무엇보다 창조하신 생물들을 향하여 번성할 것을 명하시면서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으심으로 창조의 섭리가 진정한 생명력을 선사함에 있음을 드러내신다. 이를 통해 예술의 속성은 분명 죽어있거나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Schaeffer, 2001).

6. 여섯째 날의 창조: 아름다움의 정점, 인간 창조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위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물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창세기 1: 24-31)".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여섯째 날에 육지에 사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

간을 창조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다(창세기 1:24-31). 하나님은 아름다운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을 자신의 창조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어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보이지지 않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으로써 아름다움의 극치를 나타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본질이시고 천지창조의 모든 과정에 이러한 예술미의 속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섯째 날의 창조 과정에는 고스란히 예술이 지닌 속성으로서 창조와 조화의 섭리가 드러난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의 필요를 살피시고 그 안에 조화를 이루도록 명령하시는 가운데, 창조의 정점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더 나아가 창조된 자로 하여금 조화를 이루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할 것을 명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창세기 1:27)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였다. 따라서 아름다움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이고도 초월적인 아름다움에 비추어 예술미를 발휘함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향유할 권리도 부여받은 존재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재창조할 수 있는 예술가적 속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아름다운 존재이다(Schaeffer, 2001). 인간은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부름받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므로 따라서 인간 또한 인격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생각하고 느끼며 뜻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고 반응할 줄도 알며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타인과, 그리고 피조된 세상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창조되었으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행한 일 중에서 가장 창조적이며 예술가적인 활동은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naming)’이었다(창세기 2:20). 이러한 이름 짓기 행위의 절정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탄생된 하와를 향한 감동과 정서를 담은 표현을 통해 극치를 이루었는데, 그것은 메타포(metaphor)를 활용한 말로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은유적 탄생 및 하와를 ‘여자’로 지칭하여 부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 아담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창조적 행위는 단순히 사물을 분류하고 고유의 이름을 부여하는 기호(sign)의 의미를 넘어 그 이름에 담긴 사실적 이미지와 정서까지도 고스란히 담은 예술미와 창조성이 드러나는 행위인 것이다(Cassirer, 1979). 이후 아담의 자손으로서 가인의 6대손인 유태 또한 음악가들의 모범이 되어 현악기와 관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음악적 재창조의 면모를 보여주었다(Schaeffer, 김영재 역, 2001). 이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감정이나 생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간 창조의 역사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고 창

조의 피날레가 보여주듯 극적이었으며, 예술이 전해주는 감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듯 하나님의 창조는 피조물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자 살아 숨 쉬는 예술적 힘을 발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아름다움의 속성은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에 부응하는 아름다움이며, 생명의 시작이고 조화로운 창조 질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7. 일곱째 날의 안식: 창조의 완성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이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창세기 2: 1-4)”.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안식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다(창세기 2:1-4). 하나님의 안식은 그의 창조에 대한 완전성(Completeness)과 창조된 세계로부터 느끼는 미적 아름다움에 대한 만족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날을 복 주시고 특별히 구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임을 보여주고 있다(서나영, 2018).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시니라”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만 천지창조를 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적인 것임을 드러낸다. 또한 아름다운 피조 세계의 작품들을 창조하신 6일 내내 아름다움을 향유하면서도 만족해하심을 통해 알 수 있다(이민경, 2005).

IV. 결론

본 연구는 성경적 관점에서 예술미(美)를 탐구하고, 특히 창세기 천지창조 서사에 나타난 예술미의 본질을 분석하며 현대 예술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앞서 제시한 고찰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적 관점에서 예술미의 본질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예술미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질서, 조화, 아름다움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미(美)를 창조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부여받았다(창 1:27). 따라서 성경적 예술미는 단순히 인간의 주관적 감각이나 취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만물에 부여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질서와 아름다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Schaeffer, 2002).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예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반영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적 행위이자 예배의 한 형태임을 강조한 Rookmaker(1970)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천지창조의 과정에 나타난 예술적 속성들은 ‘다양성’(Variety)과 ‘완전성’(Completeness), ‘고유성’(Uniqueness)과 ‘조화’(Harmony), ‘통일성’(Unity)과 ‘명료성’(Clarity)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성경적 관점의 예술미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다양성’(Variety)과 ‘완전성’(Completeness)의 경우, 천지창조는 빛, 궁창, 땅, 바다,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피조물들은 각자의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세상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완전한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은, 예술 작품이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전체적인 통일성과 완결성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고유성’(Uniqueness)과 ‘조화’(Harmony)의 경우,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각각 고유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고유한 존재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조화로운 생태계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창조의 원리는 개별적인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나님 창조 원리에 반하는 현대 예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성경적 예술미의 회복이 가져올 문화적, 영적 의미의 제고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예술은 주관성의 극대화, 파괴적 충동, 그리고 절대적 가치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즉, 창조의 원리인 질서, 조화, 의미로부터 벗어나 혼돈, 파괴, 허무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며 오늘날 예술의 타락과 문화의 혼란이 창조자이자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영성과 창조 원리에 반하는 몰각(沒却)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상기시킨다. 현대 예술의 무분별한 주관성의 극대화는 보편적 아름다움의 기준을 무너뜨렸고, 파괴적 충동은 예술을 단순한 해체와 반항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문제들은 예술이 절대적 진리를 상실하고, 영적인 공허함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

6) 디지털 안전과 윤리는 디지털 정체성 형성, 디지털 범죄, 디지털 과의존·중독 예방,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소프트웨어 사용법 익히기, 가짜 정보 판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사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하기,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예절 익히기, 디지털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소통하기,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기 등의 하위 기능 요소로 설명된다(관계부처합동, 2025).

다. 그러므로 성경적 예술미의 회복이야말로 단순한 전통으로의 회귀가 아닌, 문화적, 영적 재생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적 측면에서, 성경적 예술미는 현대 문화에 질서와 조화를 회복시키고, 예술의 사회적 소통 기능을 되찾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 측면에서는, 예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가들은 창조주를 본받아 진정한 창조 행위를 통해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희망과 진리의 빛을 제시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경적 관점에서의 예술미란 창조를 통해 아름다움을 온 인류에게 선물하신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될 때만 온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술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술 작품에 대한 철저한 통찰과 지각을 수반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술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조명되는 것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술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서나영, 2018).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욱더 예술적이어야 하며, 예술은 상실과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통로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삶 속에서 예술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살며,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술을 재창조하는 주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예술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조명될 때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경적 예술미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술 장르별(음악, 미술, 문학 등) 적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문환 (2002). 예술의 종말과 미학의 종말. *문학과 사회*, 30(4), 241-268.
- 김영재 역 (2001). *예술과 기독교*. Schaeffer, F. A. (1973). *Art and the Bible*. IVP.
- 김율 (2010). 서양 고대 미학사 강의. 한길사.
- 박치형 역 (1994). 미술사의 기초 개념. Wölfflin, H. (1915). *Principles of art history*. 시공사.
- 서나영 (2018). 아름다움과 안식: 예술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신앙과 학문*, 23(2), 119-147.
- 성경출판부 (2014). *프리미엄 굿데이 성경*. 생명의말씀사.
- 신국원 역 (2010). *행동하는 예술*. Wolterstorff, N. (1980). *Art in Action*. IVP.
- 심은록 역 (2012). *관계 미학*. Bourriaud, N. (1998). *Relational Aesthetics..* 미진사.
- 이민경 (2005). *기독교 미술론*. 한들출판사.
- 이한순 역 (2002). *도상해석학 연구*. Panofsky, E. (1939). *Studies in Iconology: Humanistic Themes in the Art of the Renaissance*. 시공사.
- Begbie, J. (2000). *Theology, Music and Ti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ssirer, E. (1979). *The Philosophy of Symbolic Forms, Volume 2: Mythical Thought*. Yale University Press.
- Eco, U. (1986). *Art and Beauty in the Middle Ages*. Yale University Press.
- Farley, E. (2001). *Faith and beauty: A theological aesthetic*. Ashgate.k.
- Kevin, K. (1982). The Interplay of Aesthetic Discernment and Creative Talent in Art Production.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16(3), 88-101.
- Kuyper, A. (2000). Calvin's Concept of Art and Creation Mandate. *Journal of Christian Aesthetics*, 34(2), 150-165.
- Lankford, E. L. (1992). *Aesthetics: Issues and inquiry*. NAEA.
- Richard B. & Gaffin Jr. (2000). Redemptive-Historical Hermeneutics and the Christian Artist.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2(2), 287-302.
- Rookmaker, H. R. (1970). *Modern Art and the Death of a Culture*. Crossway Books.
- Sasaki, M. (2002). Building an empirically-based model of EFL learners writing processes. *Studies in Writing*, 11, 49-80.
- Seerveld, C. (1980). *Rainbows for the Fallen World: Creativity and its Redemption*. Wedge Publishing Foundation.

Sheppard, A. (2001). The Artist's Activity, Emotional Expression, and Aesthetic Valu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53(4), 402-418.

Wenham, G. (1987). *Word Biblical Commentary-Genesis 1-15*. W Pub Group.

성경적 관점의 예술미(藝術美)에 관한 탐구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 '천지창조'를 중심으로-

A Study on Artistic Beauty from a Biblical Perspective -with priority given to "the Creation" in Genesis 1:1-2:4-

방은영 (총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에 나타난 '천지창조'를 중심으로 성경적 관점의 예술미(藝術美) 탐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예술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현대적 논의가 다원화되고 상대화되어가는 가운데, 성경적 관점에서 미학의 이론적 기초를 재조명하고, 현대 예술이 직면한 의미상실, 기준의 혼란에 대한 통찰의 제공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적 관점의 예술미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주관적인 미적 감각이나 창작 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심도 깊은 통찰과 지각(知覺)을 통해 비로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술미는 예술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조명이 가능하며, 이는 곧 하나님의 초월적 계시 안에서 드러난 속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천지창조 과정에서 나타난 예술미는 다양성, 고유성, 통일성이라는 예술의 근본 속성을 주도면밀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완전성, 조화, 명료성을 통해 예술미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창조물은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면서도 전체 창조 질서 안에서 완벽한 통일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면, 오늘날 예술의 타락과 문화적 혼란은 창조자이자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영성과 창조 원리를 망각(沒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성경적 관점에서 예술미는 창조를 통해 인류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신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성경적 관점, 예술미, 창세기, 천지창조